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이차익 의존도 낮추고 비차익 높이는 중국 생보업계

□ 중국의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이차익*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음.

- 주식 및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상당한 차익을 거두었던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의 비중을 낮추고 보장기능이 강화된 상품을 대거 출시하고 있음.
- 중국 주식시장이 향후 1~2년 동안 불안한 행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예년의 안정적인 이차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.
- 따라서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은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비차익*을 늘리는 한편, 위험자산을 투자해 얻는 이차익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.

* 이차익 : 보험회사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예정이율 초과시 생기는 이익

* 비차익 : 생명보험 경영에서 보험료수입 중 경비총당 부분이 실제 지출경비 초과시 생기는 이익

□ 주요 생명보험회사인 신화생명(新華人壽)은 이차익 의존도를 줄이고 비차익을 높이는 전략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.

- 신화생명은 올해 11월 말 현재 보장성 보험 신계약 분할납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69% 증가해 총수입보험료 증가율(88%)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, 이는 이차익을 기대하고 판매했던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됐음을 의미함.
- 아울러 사업비 사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사용 후 반드시 상급부서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등 비차익 실현에도 노력하고 있음.

(제일재경일보 12/25)